

지역 메아리

김제농기센터, 도시민 상담 실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에서는 지역 방문이 어려운 수도권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35명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제1차 도시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정은 김제시 귀농귀촌정책 설명과 함께 김제에 찾아가지 않아도 김제시 귀농귀촌 담당자와 귀농·귀촌 선배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귀농귀촌 상담을 시작으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의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신청부터 용자 지원 등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설명과 선도 귀농인의 귀농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완주군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 역량강화에 나섰다.

20일 완주군은 지난달부터 5주간,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대상으로 완주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이론뿐 아니라 대표관광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하는 등 관광객들의 시선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주군은 송광사, 삼례문화예술촌,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5곳에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사전신청을 하면 누구나 해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농기센터, 배수구 정비 당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지난 19일 계속되는 강우로 보리밭의 습해 피해를 막기 위해 비가 내린 후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구를 정비하여 물을 빼내도록 당부했다.

보리는 습해를 입으면 뿌리의 산소부족으로 양분과 수분흡수가 감소하여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 불균형이 일어나 누렇게 변해 서서히 말라죽어가는 황화현상을 보인다. 그 결과 포기수가 적어져 수량감소가 발생한다.

이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물 빼기를 해 주고 특히 논 포장과 배수가 불량한 곳은 양쪽에 보머리를 터서 습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습해를 입어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장은 요소 1~2%(액물 20리터에 요소 200~400g)을 10a당 100리터씩 2~3회 연면 시비하여 생육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복합행정타운 조성 '첫 삽'

970억원 투자... 청사 주변 주거·상업·문화시설 갖춰

완주군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완주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운곡지구)'의 첫 삽을 떴다.

20일 완주군은 청사 인근인 용진읍 운곡리에서 복합행정타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정성모 군의장, 대행개발사업 관계자, 도·군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체,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명품 복합행정타운으로 거듭날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축하했다.

완주복합행정타운은 총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해 청사 주변 4만7000평 방미터에 행정, 업무, 문화, 주거, 상업기능을 갖춘 수 있도록 주거,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용지 조성이 이뤄지며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2027세대 약 4663명이 거주하게 되며, 입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수변공원 등이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모아종합건설, (주)삼부종합건설의 대행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군은 편입토지 매입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대행개발사업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공사를 맡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정절차 이행 등의 심혈을 기울인 끝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복합행정타운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의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신청 접수

김제시, 23일까지... 단열·창호 등 시공 지원

김제시는 오는 3월 23일까지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대상 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현재 김제시 지원 예산 규모는 60세대로 되어 있으나 신청가구가 많을수록 많은 가구가 혜택이 가도록 예산

배분방식이 변경되어 지원세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이며, 복지시각지대에 있는 일반저소득가정도 포함된다. 국민기초수급가정 중 주거급여자 '자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며,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을 불가하다.

사업내용은 시공지원으로 단열, 창호, 바닥판 등 에너지 효율시공이고, 물품지원으로는 고효율 보일러(가스·기름보일러)지원이며 금액은 세대당 200만원 한도다.

지원 접수 절차는 수급자 본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국에너지재단 시공업체에서 대상가정을 찾아가 지원내역과 시공범위를 협의 후 대상자가 선정되면 10일까지 설비지원이 완료된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저소득가정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원대상세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궁화 명소 완주군, 관리 작업 착수

무궁화의 명소 완주군이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 작업에 돌입, 단장에 나섰다.

20일 완주군은 명품무궁화길에 선정된 국내최장 무궁화 100리길(17번국도)을 비롯해 관내 도로변, 무궁화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나라꽃 무궁화 대한 체계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무궁화 100리길을 비롯해 주요 도로변과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동산에 7만4100여 주의 무궁화를 식재,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명소화 단장은 가로변에 식재된 무궁화 수목의 수형조절을 위한 정정 및 비료주기 작업, 병충해 방제가 주로 이뤄지며 이번 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나라꽃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개정으로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청사 및 학교 별 무궁화의 식재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회 연속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로써 무궁화의 다양한 품종과 꽃의 아름다움을 홍보, 전국적인 무궁화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교일동 딸기 체험 프로그램 '호응'

딸기 농장, 주말 체험 가족들로 문전성시

김제시 교일동에 소재한 딸기 농장이 최근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몰려드는 체험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딸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딸기코 빨강코(농장주 김미정, 41) 농장은 3년 전부터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귀농청년농업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얼마 전 농림부 주관 청년농업인 100인에 선정될 만큼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색 있고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다.

이 농장은 하우스 안에서 빨강게 익은 딸기를 마음껏 따먹고 정해진 양만큼 담아 가기도 하며 딸기잼과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등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특별한 홍보 없이

도 입소문만으로 매주 체험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교일동 딸기'라고만 쳐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도 높아진 이 농장의 딸기체험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5월이면 종료되기 때문 에때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만드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면 체험예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일동의 또 다른 딸기 농장 '벽골재 딸기'(농장주 이주봉, 36) 역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딸기를 재배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일컬어 모태농민이라고 말하는 농장주가 자긍심을 가지고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민화합 -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세미나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자연보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자연보호 김제시 협의회(회장 정성주)가 주관하는 제21회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세미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북과 경남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중희 국회의원, 나병문 김제시의회의장,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임원, 각 지역협의회 회장 및 전라북도와 김제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정성주 김제시 협의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자연보호운동은 단순한 국토청결운동이 아니라 자연의 이용과 보전의 균형 속에서 사람을 이롭게 하

는 사람보호운동이다"고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운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전했다.

세미나 첫날 영·호남 회원들은 개회식과 강연에 이어 자연보호활동 우수사례 발표와 동·서 화합의 시간을 보냈으며 둘째 날에는 김제민간유종연구단지와 금산사를 탐방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영·호남 자연보호 공동 세미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연보호 단체가 앞장서자 라는 구호 아래 영·호남 상호 교류를 통해 국토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존 방향을 모색하고 동서 화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8년부터 영남과 호남에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